

## 18세기 이탈리아 시골집으로 간 밀라노 패션계 거물, 마우리초 아치몬티

디자인의 도시 밀라노에서 태어나 패션계에서 비주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남자가 시골 생활을 선언했다. 네 마리 반려견과 함께 자연 속에서 균형 잡힌 삶을 꿈꾸는 마우리초 아치몬티, 그가 직접 꾸민 컨트리 하우스를 최초 공개한다.

writer\_ 이정민 photographer\_Filippo Bamberghi  
cooperation\_FineArt by Di Mano in Mano(www.fineart.dimanoinmano.it)  
stylist\_Sissi Valassina

‘집에 대한 열정 때문일까, 아니면 반려견을 향한 사랑일까?’ 몽클레르 Moncler의 윈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럭셔리 애견 패션 브랜드 폴도도그쿠튀르 Poldodogcouture의 설립자인 마우리초 아치몬티 Maurizio Azzimonti가 밀라노를 떠난 건 약 3년 전이다. 팬데믹 이후 더 이상 크고 혼잡한 도시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본거지를 밀라노 교외로 옮겼다. 4층짜리 낡은 주택을 매수해 리노베이션하고 자신의 취향을 반영해 꾸민 집은 한마디로 아치몬티의 모든 것이 담긴 우주였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존중하는 현대적 디자인, 예술 애호가로서 오랜 시간 모아온 앤틱 컬렉션, 패션계 종사자로서 진면목을 보여주는 컬러의 조화 그리고 애견인으로서 강아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마련한 정원까지. 그의 집 안팎의 모든 것은 아치몬티를 가리키고 있었다. “저도 처음엔 도시를 떠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살아보니

제 결정이 맞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밀라노로 출퇴근하는 게 어렵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파트 생활에 한계가 있던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살게 된 점은 최고의 수확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교외에 살며 자신감을 얻은 아치몬티는 새로운 도전을 꿈꿨다. 이제는 밀라노와 완전히 떨어진, 진짜 시골에 가서 살겠노라 다짐한 것이다.

### 18세기 농가에 마련한 보금자리

아치몬티가 이사한 곳은 밀라노에서 자동차로 2시간여 떨어진 이탈리아 북부 지방 리바디솔토 Riva di Solto로, 알프스산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이세오 호수 Lake Isèo를 품고 있어 경관이 빼어난 지역이다. “집을 물색할 때 첫째 조건은 녹지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매물을 알아보던 중 18세기 후반에 지은 오래된 농가를 발견했다. 돌을 쌓아 만든 외벽에 붉은 기와를 올린 농가는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해 그

규모가 약 600㎡에 달하고, 주변에는 2만㎡의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19세기에 여러 번 개조되었다는 집 내부는 아치몬티의 취향에는 맞지 않았지만 자연환경은 그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다. “저는 이 집의 건축적 구조가 지닌 미적 요소와 전통미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모던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아치몬티는 리노베이션을 직접 진행했다. 창의적인 사람에게 집을 원하는 대로 개조하고 가구를 마음대로 선택해 배치하는 것은 가장 보람 있고 즐거운 작업이기 때문이었다. “건축가나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다만 전기, 배관, 측량 같은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이 집의 전체적인 비전은 완전히 제가 만든 것입니다.” 아치몬티가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한 실내는 전통적 디자인 요소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랄프 로렌 Ralph Lauren’의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 19세기 후반 신고전주의 양식의 조각 장식이 돋보이는 월넛 벽난로 앞에 서 있는 마우리초 아치몬티. 안락의자는 20세기 이탈리아 디자인계를 대표하는 건축가 마르코 자누소(Marco Zanuso)의 ‘시니어(Senior)’, 벽난로 옆에 놓인 대나무 집지 랙은 19세기 빈티지, 벽난로 위에 놓인 석재 문장은 18세기 초에 제작한 앤티크다.





컨트리 하우스를 연상시킨다. 실제 랄프 로렌에서 15년간 비주얼 매니저로 근무한 그의 이력을 감안하면 클래식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인테리어는 충분히 납득이 된다.

“집을 디자인할 때 두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집 외관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매우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랄프 로렌과 북이탈리아의 전통 사냥 로지<sup>lodge</sup>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치몬티는 집을 아늑하고 우아하면서도 소박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으로 만들고자 노력했고, 그 일환으로 집 외부와 내부가 대비를 이루지만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갖도록 외벽의 돌 빛깔과 회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집은 제 성격과 감성을 반영한 디자인입니다.”

**취향의 정수가 담긴 인테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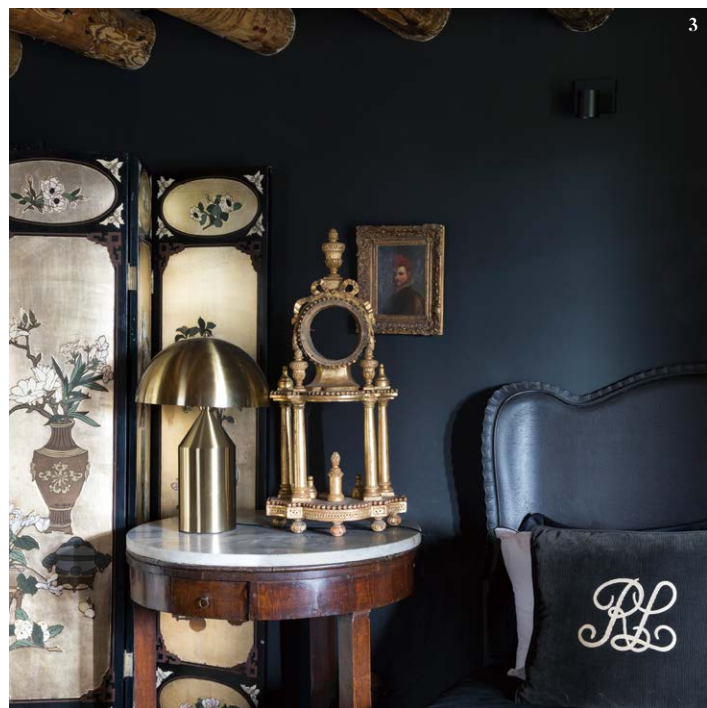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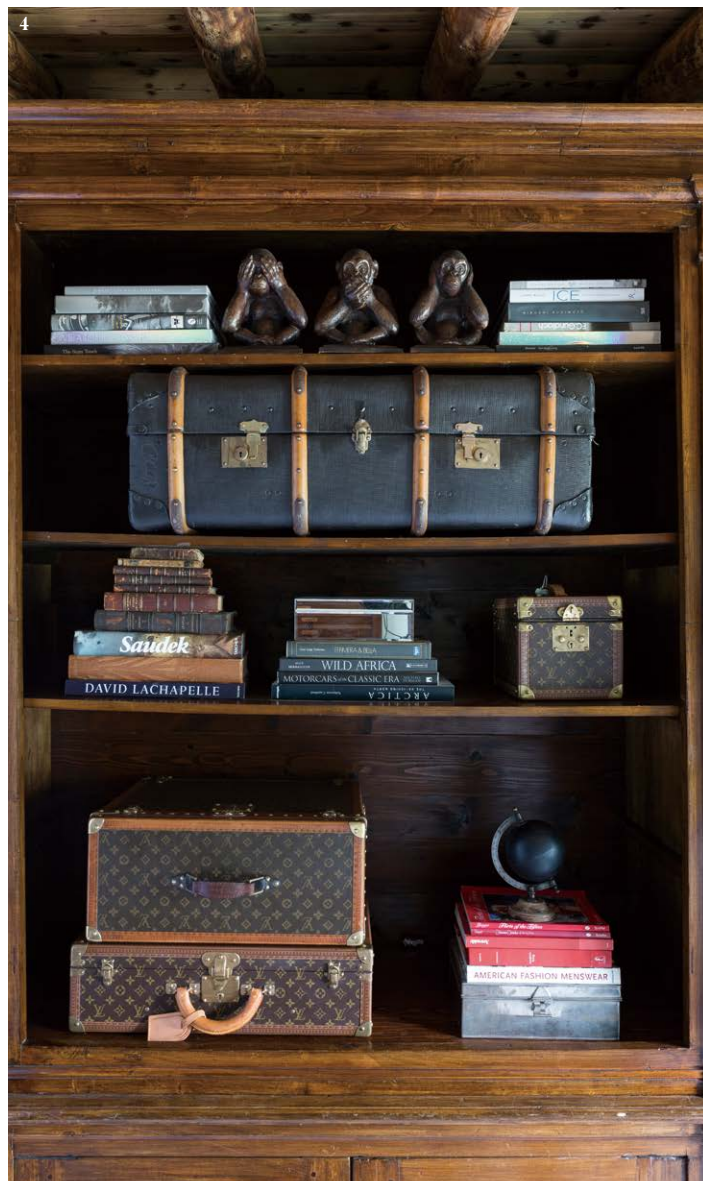
아치몬티가 외딴 시골에 아름다운 집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오랜 시간 꾸준히 모아온 앤티크, 빈티지 컬렉션 덕분이다. ‘모든 집에는 빈티지 아이템이 꼭 필요하다’는 미적 신념을 갖고 있는 그는 고전 가구와 모던 디자인의 조화로운 대비로 차별화된 스타일을 창출한다. “특히 18세기와 19세기 가구와 소품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것들은 집에 역사와 생명, 그리고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요소입니다.” 아치몬티의 설명대로 이 집은 19세기 초부터 후반에 이르는 앤티크 컬렉션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가운데 20세기 이탈리아 모던 디자인 아이콘으로 손꼽히는 조명과 의자 등이 시간의 간극을 조율하

- 1 알프스산맥으로 둘러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다이닝 룸. 긴 테이블과 가는 프레임의 의자 ‘699 슈퍼레게라(Superleggera)’는 이탈리아 디자이너 조 폰티가 1950년대에 발표한 디자인으로 1950~1960년대에 제작한 빈티지다. 등받이가 넓은 의자는 카를로 라티 디자인으로 1960년대 빈티지. 테이블 위에 놓인 금장과 청동으로 된 한 쌍의 촛대는 1840년대 프랑스 파리 앤티크.
- 2 대리석 아일랜드와 앤티크 캐비닛이 조화를 이루는 우아한 주방. 수납장은 모두 1830년에 호두나무로 제작한 앤티크를 활용한 것이며, 접시는 모두 랄프 로렌 홈 컬렉션.
- 3 고풍스러운 나무 서가래와 따뜻한 퍼 침구의 조화가 아늑한 산장의 운치를 선사하는 게스트 룸. 벽면에 걸린 한 쌍의 지도 보관함은 약 1840년에 헨리 토머스 피터스(Henry Thomas Peters)가 제작한 것이다.
- 4 게스트 룸은 20세기 중반에 제작한 중국 옷칠 병풍으로 지역적인 화려함을 더해 색다른 스타일을 연출했다.

는 무게 처처럼 곳곳에 놓여 있고, 이 모든 것은 화이트와 그레이 등 무채색 배경색을 통해 세련된 조화를 이룬다.

“가구 중 일부는 현대적이고 도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표면 광택 마감을 제거하고 어두운 톤의 특수 페인트로 칠한 것도 있습니다.” 패션 하우스에서 디스플레이를 진행하며 ‘디테일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익히 알고 있던 아치몬티는 자신이 애써 모은 앤티크도 과감히 변신시키는 모험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시도는 결코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아치몬티가 집 개조를 결심했을 때 어디에 어떤 가구와 소품을 배치할지 이미 구상을 마친 상태였다. 모아놓은 컬렉션도 상당한 데다 평소 틈날 때마다 앤티크 숍과 베틀시장 등을 둘러보는 그의 머릿속에는 이 집에 필요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이탈리아 산장의 무드를 살려줄 고풍스러운 우드 벽난로를 비롯해 고전주의 조각상은 예술사가 및 복원가 등의 전문가가 상주하는 ‘파인아트 바이 디 마노 인 마노’<sup>Fine Art by Di Mano in Mano</sup> 같은 앤티크 숍에서 발견했고, 주방의 그릇장과 서재의 책장 등 생활 가구는 베틀시





1 다이닝 룸 테이블 위에 놓인 프랑스 안티크 촛대와 무라노 출신 예술가 에르콜레 바로비에르(Ercole Barovier)가 1940~1950년대 '렌티(Lenti)' 시리즈 화병.  
 2 이탈리아 건축가 마리오 보타(Mario Botta)가 1980년대에 디자인한 '쇼군' 램프와 화려한 안티크 거울의 대비가 멋진 조화를 이루는 욕실.  
 3 게스트 룸 침대 옆에 놓인 19세기 초 엠파이어 스타일의 게리돈 테이블. 그 위에 놓인 금도금 나무 시계 받침대는 18세기 후반에 제작했다.  
 4 아치몬티가 수집한 루이 비통 빈티지 슈트 케이스와 화장품 케이스 컬렉션을 배치한 책장.  
 5 산장의 아늑함을 위해 새롭게 제작한 벽난로 앞에 이탈리아 미드센추리 모던 디자인을 대표하는 조명 브랜드 스틸노보(Stilnovo)의 1960년대 빈티지인 플로어 램프와 하운드투스체크 패턴의 1960년대 빈티지 안락의자를 배치했다.  
 6 고전 회화를 좋아하는 아치몬티가 수집한 18세기 초상화 컬렉션.

장과 차고garage 세일 등에서 구했다. “안티크나 빈티지는 유일무이한 존재이기에 언제나 새롭고, 더 이상 나이 먹지 않는 영원 불멸의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공부와 경험을 토대로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치몬티는 수집에 관해 진중하지만 스타일링 면에서는 과감한 편이다. 그의 집은 패션 브랜드가 시즌별로 새로운 옷을 내놓듯 끊임없이 변화한다. 차이가 있다면 이는 계절별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순전히 그의 기분과 취향에 따라 실행된다는 것이다. “저는 소품을 교체하고 가구 배치를 바꾸는 걸 좋아해요. 순간의 영감에 따라 공간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공간이 역동적이고 흥미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전원에서 누리는 호사

아치몬티의 전원생활은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우선 강아지 가족이 늘어났다. 원래 키우던 프렌치 불도그 ‘에르콜레Ercole’, 그레이트데인 ‘브루투스Brutus’와 ‘이소타Isotta’, 이탈리아 포인터 ‘에도Edo’ 등 총 네 마리 반려견이 있었는데, 최

근 몰티즈 ‘몰로코Moloko’가 합류했다. 창의적인 일을 하는 아치몬티에게 일어난 변화도 매우 긍정적이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반려견들과 함께 이세오 호수 주변의 숲을 산책하며 휴식을 즐기고, 집에 돌아와 여유로운 아침 식사를 한다. “자연과 깊이 연결된 삶을 꿈꿨던 저에게 이 일상은 매우 편안하고 만족스러워요. 낮에는 밀라노에 있는 몽클레르, 폴도도 그쿠튀르 등 패션 하우스와 원격으로 일하기 때문에 출퇴근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그래도 일주일에 네 번 정도는 밀라노에 가야 하지만요.”

끝없이 넓은 정원은 아치몬티의 전원생활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다. 알프스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싼 가운데 이세오 호수를 바라보는 정원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집주인은 이런 천혜의 환경에 호수와 꼭 닮은 수영장을 더했다. “외부 풍경과 농가 스타일에 맞춰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수영장 바닥은 이세오 호수의 물 색깔과 유사한 자연스러운 색으로 선택했습니다.” 아치몬티의 섬세한 미감으로 완성한 수영장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듯 자연스럽고, 휴가를 떠날 필요가 없을 만큼 최상의 휴식처가 되었다. 자연과 물이 일체를 이루는 삶을 원하는 아치몬티의 소원은 시골집 한 채를 잘 만난 덕에 완벽하게 이뤄졌다. 그는 오십 평생 여러 집을 거쳐왔지만 지금 이곳이 진정한 자신의 집이라 느껴진다고 고백한다. “매일 아침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출과 새들의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고, 종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지금 꿈속에 사는 것처럼 행복하고, 매일 이 귀한 선물에 깊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